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 신성중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15:2)

본교회 제2대 위임목사 신성중 목사

지난 23일 위임식 거행, 민족 위한 대제사장 교회로 발돋움

교회는 신성중 목사 위임식 예배를 지난 12월 23일(월) 저녁 7시 본당에서 검소하고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수도노회 위임국(위임국장 이만수 목사)이 주관한 이날 위임식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비롯하여 중경총회장, 전국 교회 위임목사, 그리고 내빈과 언론계 인사들, 본 교회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는 수도노회장이며 위임국장인 이만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찬송 36장을 다같이 부른 뒤 중경노회장 김양수 목사의 기도, 노회 서기 남상훈 목사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봉독, 본 교회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찬양이 있은 후, 총회장 이봉학 목사의 "성전의 두 기둥"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기도를 맡은 김양수 목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임받는 신성중 목사 위에 권능이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주시고, 앞으로 충헌교회가 10배, 100배, 1000배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설교한 이봉학 총회장은 "빌라델피아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을 전제한 뒤, "솔로몬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곱(내가 세우리라)과 보아스(능력이 있다)



▲신성중 목사 내외분

의 협력으로 흔들리는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우상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변화받는 교회로 우뚝 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맺었다.

계속하여 위임식 서약이 있었고, 기도, 공포, 권면의 순서가 있었다.

위임목사 권면에는 중경노회장 김관석 목사가, 교인 권면에는 중경노회장 이규일 목사가 담당했다. 중경노회장 서기행 목사와 중경총회장 최 훈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중경총회장이며 본 교회 설립자 겸 원로목사인 김창인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김창인 목사는 원사에서 "1953



▲위임식예배 전경

년 충헌교회 설립 이래 38년 4개월간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충헌교회를 섬겨왔으나 교만한 마음이 생겨 예배당 자랑하고, 혼자 기뻐했다."고 솔직하고, "70세가 되어 은퇴하기 위해 후임자를 지정, 당회에서 투표해보니 절대다수로 표를 얻지 못하였으나 고집을 부렸고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노회와 총회가 안된다고 했어도 행정 보류까지 하며 무리한 교회 행정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다. 역지를 부린 나를 노회나 총회가 제명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지도해준 것에 죄송한 생각과, 용서를 빌면서 오늘의 위임식예배를 거행케 된 것을 감사한다."고 자성하였다. 김 목사는 "교회가 그 동안

풍랑 속에 흔들리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거의 안정을 찾은 오늘, 하나님이 키워주신 신성중 목사를 위임목사로, 노회가 위임식을 해주는 진짜 위임목사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기쁨과 감동이 있었으며, 박경희 선생의 축하 찬송, 신성중 위임목사의 답사가 있었다.

신성중 목사는 답사에서 "감사하다. 충헌교회는 예정 합동축에선 가장 상징적인 교회 중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위임목사될 자격이 없는 줄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이 있는 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겠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원로목사로부터 목회철학을 배우겠고, 그래서 실망시켜지지 않는 자랑감 되는 목사가

되도록 죽도록 충성하겠다. 우리 교회는 더욱 발전해서 이 민족 위한 대제사장 교회, 북한 선교의 센터, 복음 수출국이 될 줄로 믿는다. 감사하다."고 간단히 인사하였다.

당회서기 윤명식 장로가 위임식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순서 담당자들에게 일일이 감사하고 "본 교회 설립자이시며 38년간 교회를 이끌어오신 김창인 원로목사의 뒤를 이어 신성중 목사가 본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실 때에 본 교회 성도뿐 아니라 전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후원해주시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존중하며 여기저기 겸손한 자세로 구령 전도 활동과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광고하였다.

중경총회장 김현중 목사의 축도로 위임식예배를 모두 마쳤다.

충헌프리즘

◎...신성중 목사 위임식예배에 중경총회장 김창인 목사, 최 훈 목사, 한석재 목사, 김현중 목사, 송신대 602회 동창회 목사들, 국민일보, 국동방송, 월간목회 등 기독교계 신문사 기자 및 언론계 인사, 서울지역 개교회 목사님

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접수된 화환 및 축품, 축전 등이 너무 많아 일일이 소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준비위원회측은 양해를 바란다.

◎...성탄절을 전후한 기념예배, 축하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지난 22일 저녁 찬양예배지 아멘찬양대의 메

시아 공연을 비롯하여 24일 저녁 교회학교 제1교육위원회 주최 성탄전야 축하음악예배, 그리고 25일 새벽 예배(새벽 5시 30분), 1부예배(오전 9시), 2부예배(오전 11시), 찬양예배(저녁 7시) 등이다.

특히 91년 성탄예배는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상대로 2부 축하

순서도 다채롭게 가졌다.

◎...1991년이 저물어간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자. 비록 삶의 언덕에서 날 패퇴했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십자가로 묶어버리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송구영신예배 1월 1일 0시 신년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교회는 송구영신예배를 1992년 1월 1일 0시 본당에서 드리기로 했으며, 성도들은 1991년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까지 참석토록 하였다.

또 1992년 1월 1일 신년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드리며 이날이 수요일인 관계로 저녁찬양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린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바울의 영광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엡3:1~13)

사람은 동물과 달라 밥만 먹고는 살지 못합니다. 동물은 먹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을 사면 경마를 잡히고 싶어하듯이,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을 돌아보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는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

광은 영광 중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5절에 의하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과거 구약시대에서나 그 이전의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했던 것으로, 그때서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성경에는 계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내변이나 거절했습니다.

때부터 어느 민족이든지 타민족에 대해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를 중국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며 다른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멸시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인들을 왜놈, 중국인들을 대놈이라고 하면서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뿔감으로 삼으려고 창조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에 젖어 있던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첫번째 비밀은 이방인들도 후사가 되고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파도 같은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가시고 우리들은 그 가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3:8)

바울이 발견한 두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들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도 크나큰 영광입니다.

3. 환난당하는 영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엡3:13)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이제는 망했구나.’ 하면서 낙심합니다. 세상을 외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등 여러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나무는 바람불 때 그 가지가 흔들려 뿌리가 더욱 깊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 당한 사람은 더욱 성숙해져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 말씀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같이 깊이가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눈물로 감시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게 될 보충수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바로 영광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영광은 영광 중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아야

의 영광은 성경적인 영광입니다. 우리들은 영광을 추구하되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뺏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영광,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괴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기나 살인과 같은 세속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엡3:1). 예수님의 일로 갇힌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1. 깨달음의 영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엡3:4)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비밀에는 알아서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이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주식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밀은 알아서 좋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알아서 나쁜 비밀도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얘기할 수도,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은 알아서 좋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을 받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영

첫째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했던 사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 비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사도들과 스데반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되심을 저들에게 전달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자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3:6)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않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사회

근원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축복을 이방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2. 일꾼이 된 영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3:7)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백여년 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복음의 비밀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4. 축복의 결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3:12)

대통령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볼 것 없이 바울이 가진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

대학의 복음화와 건전한 대학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본 교회와 C.C.C(대학생 선교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가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본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양회

매년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겨울성경학교와 수양회가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영아부로부터 에바다부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원 설립

병들어 소외당하고 지체가 부자유하여 냉대와 질사를 받으며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하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충현복지원이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충현복지원에서는 복지마을, 사랑의 집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곳에 유아원, 유치원, 상담실이 입주케 된다.

충현제자훈련

직분자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3월 21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동 훈련에는 집사급 이상이 1박 2일 코스로 교육받게 되는데, 희망자에 한해 일반 성도도 참석했다.

제5회 교구찬양대회

교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구찬양대회가 4월 13일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17개 교구가 참가한 동 찬양대회는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단합과 친교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3차 충현올림픽

각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제3차 충현올림픽이 5월 21일 올림픽 제1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충현에 축한 전 성도가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과

◆1991년을 보내며◆

교회가 교회되는 새로운 획 그은 한 해

충현교회의 1991년은 다사다난했다. 새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르자고 다짐했고, 모범적 교회가 되자고 목회 지침까지 마련하여 발표했지만, 지도자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있었다.

성례보다는 행사가 앞섰고,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는 프로그램에 치중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국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자랑, 교인숫자 자랑, 교회의식 자랑, 그리고 세계적 선교대회 명분으로 호화판 세미나가 판을 쳤고, 이에 곁들여 사람 자랑까지 하는 바벨탑을 쌓고 말았다.

급기야는 지도자의 신실성 결여와 도덕성 결핍으로 인해 목회자가 경질되었으며, 38년간 은혜가 넘쳤던 우리 교회가 한 사

람의 실수와 교만으로 인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퇴색했는가 하면, 쓸데없는 조각물을 설치하여 우상 숭배의 기회 부여를 허락했으며, 정성으로 드린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특정인의 명예와 권위를 세워주는 도구로 전락케 되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기본 패턴을 잃지 않고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초빙하고, 지난 23일 제2대 위임목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제 91년 한 해 행사 및 사업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간추려 본다.

환희와 영광의 잔치였다.

제4차 홍해작전

개인·가정·교회·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기 위한 기도 운동이 6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개최되었다.

새벽기도회 시간을 이용하여 가진 동 홍해작전은 성령의 불길로 홍해를 가르는 기도 운동이었다.

'91 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

전도위원회가 주관하는 '91 하기 농어촌전도대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미자립 농어촌 교회에 투입되어 여름성경학교 인도

와 주민 복음화에 앞장섰다.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가 8월 22일부터 3일간 본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청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에 입각한 세계관을 정립하게 하고, 자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전국일꾼을 양육할 목적이었다.

비전 2000운동

2천년대의 역군이 될 자녀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전 2000운동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교회 설립 기념 각종 대회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경암송대회, 성극경연대회, 웅변대회가 10월 6일, 20일, 25~26일에 각각 열렸다.

동 대회는 천국일꾼양성 차원에서 거행되었다.

제7대 안수집사 및 제35대 권사 선출

9월 8일 우리 교회 제7대 안수집사 및 제35대 권사 선출이 있었는데, 집사 6명, 권사 50명이 피택되었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친 뒤 내년 3월 경 임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종운 목사 본 교회 사면

이종운 목사가 9월 17일 신실성 결여 및 익명투서에 따른 도덕성 결핍 사유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동 결정은 당회가 투표에 의해 의결했다.

심령부흥회 개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사 이만신 목사를 모시고 심령부흥회를 개최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란 주제로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제1회 충현합창제

우리 교회 찬양대의 잔치인 충현합창제가 11월 2일 개최되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동 합창제에는 6개 찬양대와 크로마하프, 핸드벨콰이어가 참가했다.

신성종 목사 위임식

12월 23일(월) 오후 7시 신성종 목사 본 교회 제2대 위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동 위임식은 수도노회 위임국이 주관했다(관련기사 1면).

장로칼럼

교사 임명을 받으면서



최무길 장로
(초등5부 부장)

금년에도 교사로 임명하여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초에 부족하기 그지 없는 저희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임명을 받을 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아도록 사랑하시어 천사도 흠모하는 교사로 삼으시니 생각만 하여도 감개무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결심도 하고 충성하리라 또 다짐도 해보지만 몇 날이 못가서 다 깨어져

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인가 봅니다. 벌써 연말이 되어 결산 보고서를 내려고 하니, 행한 것은 없으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넘겼으니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아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도 켜전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두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는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교사란 이토록 책임이 무거운 것인가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오염을 시켜놓는 것뿐이니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었습니까.

사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사람을 생매장하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나 어린 자식 같은 이를 농락하여 육체의 쾌락을 누리면서조차 죄로 여기기는 커녕 당연지사한 것처럼 여기는 양심이 되어버린 어른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그토록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제와사는 돌집에 어둡고 하며 망언을 늘어놓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바라보는 양심으로 오염되어버렸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의 깨끗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를 가득히 채워야 하는데, 추악한 어른들을 바라보는 어린이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얼굴이 먼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교사로 임명을 받고보니 더 한층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염된 사회, 썩어져가는 사회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이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오염에서 회복되어지는 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였으니 교사도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임명받은 교사들은 자기가 잘났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여 깨어지기 잘하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교사로 임명하여 주셨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사든지 처음에 임명을 받을 때의 그 결심과 충성을 대접하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여 또 한 해도 오염을 중화시키는 축배를 양육하는 충성된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호 칼럼은 윤명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92년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목회 지침

신성종 위임목사는 1992년도 목회 지침을 발표하였다.

목회 지침의 주제 성구는 누가 복음 14장 23절 하반절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이며, 표어로는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

회가 되자”이다.

그리고 교회 목표 세 항을 선정하여 계속 기도를 당부했는데, “첫째, 천국 일꾼을 키우자. 둘째,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셋째, 온 세계에 복음을 전

을 전하자.”이다.

이런 목회 지침에 따라 92년도에는 장년 교인을 현 수준의 교인 통계(7,762세대, 3만여명)에서 완전 배가시키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된다.

오늘 특별제직회 Ⅳ부예배 후 본당서

12월 정기제직회가 특별제직회로 회집되어 91년 결산 보고와 92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오늘(29일) Ⅳ부 예배후 본당

에서 가질 특별제직회는 신임 제직회 임원 인사도 병행되는데, 집사 이상 모든 제직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는 군복음화의 차원에서 지난 12월 26일(목) 강원도에 있는 ○○부대를 방문하였다.

전도위원 및 군전도회원 15명은 150명의 장병들과 함께 신성종 담임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전과 온풍기, 과일 등을 전달하였다.

살롬! 주 안에서 충현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임마누엘찬양대에서 4년간 봉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간의 봉사 생활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과 올해 저의 찬양 생활의 일부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배우고 깨달은 첫째는, 교회일은 협력 사업이지,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한다는 생각의 결론은 외로움과 고단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말씀대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아서 겸손히 일했을 때, 혼자 일할 때와는 비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눈물겨운 수많은 손길, 수고와 존재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989년 찬양대 특집호 발행을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에 관심을 두고 여러 자료를 모으고 읽던 중 교회 봉사 좀 했다고 교만했던 저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던가를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충현도서관 등지에서 우리 교회 역사서적들을 읽는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거듭보

기독 교사 동계수련회

학원전도회는 오는 1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다니홀에서 기독 교사 동계 수련회를 개최한다.

보다 실질적인 학원 복음화를 위해 마련된 이 수련회는 예배와 두 차례의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교회 김해규 목사가 “학원 선교의 방향”에 대해, 소망교회 이호운 목사가 “학원 전도의 실제”에 대해 특강을 하게 된다.

다는 좀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당예배날 많은 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그 뒤에 있었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을 또 눈물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교회가 결코 그냥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고,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이 계셨

본당 109호도 기도실로 사용키로

교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기도실을 여자 성도 전용 기도실로 사용키로 하고 남자 성도들을 위한 전용기도실을 본당 나사렛홀 뒷편 109호에 마련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더욱 전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 아 모 집

- 지원자격: 1986. 3. 1~1989. 2. 28에 출생한 어린이
- 모집인원: 영아반 20명, 유아반 29명, 유치반 40명
- 구비서류: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5매
-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 13~18
- 교부 및 접수처: 유치원 사무실

경주하는 것이 봉사하는 자의 자세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찬양대의 찬양은 최선의 노력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야 할 찬양을 경솔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변명과 합리화로 회생과 노력을 기피하면서, 가사보다는 멜로디에만 치중하는 모습들이 비쳐졌을 때는 무척 답답했고, 저 자신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척 죄

오늘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식

교회는 오늘(29일) 찬양예배시 장로, 집사, 전도사, 권사에 대한 은퇴식 및 20년, 15년, 10년 근속자에 대한 포상식을 갖는다.

이번에 은퇴자는 장로가 1명, 안수집사 1명, 전도사 1명, 그리고 권사는 27명이며, 20년 근속자는 1명, 15년 근속자는 12명, 10년 근속자는 48명이다.

◆은퇴자

장로: 고병욱(2588)

안수집사: 강명순(907)

전도사: 구명신(191)

권사: 양장희(87-820), 이옥현(124), 한순명(283), 백인숙(1410), 김용실(453), 안묘섭(273), 김두성(247), 김병숙(412), 이덕순(500), 이현순(310), 최춘란(1679), 주귀남(1697), 장기옥(527), 정봉조(248), 김경숙(1032), 장성순(1698), 지영실(272), 노순경(1128), 박순규(1107), 최홍신(2121), 안윤진(754), 서석임(3439), 손보석(316), 조순희(193), 이금순(3421), 김창린(1003), 박석순(1617)

◆근속자

· 20년(1972. 1 ~)

교역자: 최순복(2547)

· 15년(1977. 1 ~)

권사: 김영희(1654), 문명숙(180), 송귀남(244), 임희순(539), 전순자

(901), 김순애(1442), 김신도(2598)

찬양대: 장명숙(1362), 임창식(80-10)

교사: 정희공(3324), 김시주(1428)

직원: 강영철(4832)

· 10년(1982. 1 ~)

권사: 계순옥(208), 고남균(985), 김귀녀(372), 김송자(3576), 김유순(2166), 김정화(2345), 김후전(1020), 남궁규원(1609), 라봉도(1312), 민은혜(105), 백봉희(565), 백순희(259), 서양순(870), 송명희(904), 신금녀(1803), 안옥실(2174), 이상덕(159), 이춘일(1598), 장사열(5248), 장영옥(430), 정송화(25), 조동숙(10), 조명녀(4375), 조인순(1856), 최복순(801), 필기복(1715), 한순명(283), 한순원(1941)

찬양대: 정영덕(86-480), 임선애(3313), 권영주(81-283), 김병수(492), 채은실(86-566), 최동규(3155), 김명숙(3155), 박윤희(1048), 유경아(2955)

교사: 정영래(5346), 안경애(80-810), 이천애(3195), 홍성옥(1212), 김정연(5364), 정청길(80-711), 조승철(80-581), 문미령(2921), 최정길(5035), 이장하(1655), 박종옥(81-47)

참석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0장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바라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성가복이 젖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찬송가 40장이 간절히 마음에 와닿았던 저녁이었습니다.

11월 2일, 제1회 충현성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저희 찬양대가 부른 두 곡의 찬양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주 만드신 이 세상, 지혜로운 창조주 그 솜씨 놀라와,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작은 새, 우리 주가 만든 솜씨 잘 드러내도다” 이 곡 역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고, 메토벤 C장조 미사 중의 “글로리아”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었음은 너무나 감격적인 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송규영선 예배를 준비하며 읽었던 그 성구와 찬송을 통해 1년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의 주 되신 하나님과 조신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찬양대의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되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독자의 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박경환 학생(대학부·임마누엘찬양대)

습니다. 눈을 감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새벽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봉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섬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봉사의 연속은 모래성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왜 지금 이 봉사를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매주 자신에게 던지지 못할 때 저 자신도 깨어지지고, 무의미한 생활에 지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도로 열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찬양대라는 것이 음악적 실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창에 방해되는 음식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서로의 화목까지 깨는 불상사가 없도록 서로의 음악적 발전과 영적 생수를 격려하는 마음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만의 음악이 아닌 공동체의 음악임을 생각하면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찬양을 향한 마음의 합일과 음량의 절제와 조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송규영선예배를 준비하면

고 대학부 남성중창 특선 시간에 “주 하나님 제이신 모든 세계”(편곡)를 부르게 되었음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희 찬양대에서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음악예배(9월 1일)를 담당했는데, 그 곡 역시 하이드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였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3편 합창곡 “제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을 부르면서 온 몸의 전율과 감동에 눈가에 에슬을 형성하는 듯 했습니다. “주의 영광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을 계속 외쳤던 저는 그 예배를